제14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

(The 14th International Seapower Symposium)

기 본 계 획

대한민국 해군

Republic of Korea Navy

Fair Winds and Following Seas with Clear Skies !

담당 장교 : 해군소령 유지훈
Cell : 010-3146-2910 / Email : yjhnavy3@hanmail.net

기 본 계 획

□ 일반사항

○ 기 간 : '19. 9. 2.(월) ~ 3.(화) / 1박 2일 【참 고 1】

* 9.2.(월) : 환영 리셉션 / 9.3.(화) : 심포지엄

○ 장 소 : 서울 롯데호텔

○ 공동 주최 : 해군본부, 한국해양전략연구소, 한국해로연구회

□ 주제 · 논제 선정 중점

○ 국가안보목표인 '동북아 및 세계 평화·번영에 기여' 할 수 있는 해군의 역할 및 과제 식별

국가안보 목표 추진 방향 :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

-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 강화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조성에 기여
  *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주변국과의 다자협의 정례화/제도화
- 신북방/신남방 정책 추진을 통한 외교지평 확장
  * 인도, 아세안,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정치/경제협력 강화, 지역협력 제도화
- 국제사회에서 역량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적극 모색
  * 초국가적 위협(테러, 재난·재해, 난민, 사이버 안보 등), 공공외교, 개발협력 등

○ 해양에서의 갈등요인이 산재한 아시아·태평양 국가 간 해양협력 방안 모색

* 해양갈등 요인 : 해양패권 경쟁, 도서영유권, 해상교통로, 해양자원 등

○ 해양안보 질서와 평화유지를 통한 공동의 번영추구가 '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' 이라는 공감대 형성

* 해양협력은 역내 평화와 협력의 시발점 : "바다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(VIP)"

⇨ 전환기적 안보상황 下 아시아·태평양지역에서의 전통적·비전통적 해양위협 동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주변국 간 해양안보 증진방안 모색 및 한국 해군의 역할과 정책 과제 도출

□ 주제 및 논제

【참 고 2】

주 제	아시아 ·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
제1분과	아시아 ·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 평가 및 전망

논제 1 : 아시아 · 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·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 평가

* 역내 국가 간 해양패권 경쟁(군비경쟁), 영토분쟁 등의 안보갈등 요인 평가 【참 고 3】

논제 2 : 주변국의 해양안보 인식 및 정책 · 전략

* 역내 주요 4강 및 동남아 국가의 해양안보 상황 인식과 정책기조 이해
*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제3국(유럽)의 시각 확인

제2분과	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 협력방안

논제 3 : 한반도의 전환기적 안보상황 下 안보패러다임 변화와 해양안보

* 변화하는 안보상황下 해양안보 중심의 안보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제고

논제 4 : 역내 국가 해군 간 해양신뢰구축(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) 강화방안

* 전통적 · 비전통적 해양위협 요인에 따른 분쟁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국가 간 신뢰구축 방안 모색
*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외교 확대(신남방 정책)를 위한 한국해군의 역할 모색

논제 5 : 북극해(북극항로) 개척을 위한 해양협력 방안

* 북극해(북극항로) 개척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추진 현황 조망 및 시사점 도출
* 북극해(북극항로) 개척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한국해군의 역할 모색

논제 6 : 국가 해양력 강화 방안과 해군의 역할 및 과제

*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및 제언
*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해군의 역할 및 과제 식별

□ 초청인사

○ 축사 · 기조연설 · 사회자 【참 고 4】

분 야		대 상 자
축 사		□ 안 규 백 (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)
기 조 연 설		□ Harry Harris (주한 美 대사)
사 회	오전	□ 김 지 윤 박사 (MBC 100분토론 사회자)
	오후	□ 이 서 항 박사 (해양전략연구소 소장)

※ 역대 인사 : 축사(국방위원장, 연합사령관 등) / 기조연설(美 태평양함대사령관, 7함대사령관 등)

○ 논제별 발표 및 토론자 【참 고 5】

구 분			발표자	토론자
Ⅰ분과〔오전〕	논제①	아시아 · 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 평가	□ John Blaxland	□ Mark Lippert □ Wu Shicun
	논제②	주변국의 해양안보 인식 및 정책 · 전략	□ Erik French	□ John Kingwell □ Pradeep Chauhan
Ⅱ분과〔오후〕	논제③	한반도 전환기적 안보상황 下 안보패러다임의 변화와 해양안보	□ 이 춘 근	□ Peter Gumataotao
	논제④	역내 국가 해군 간 해양신뢰구축 강화 방안	□ 조 성 민	□ Tetsuo Kotani
	논제⑤	북극해(북극항로) 개척을 위한 해군 협력 방안	□ Paal Hilde	□ 신 형 철
	논제⑥	국가 해양력 강화 방안과 한국해군의 역할 및 과제	□ 구 민 교	□ 김 대 홍

※ 논제별 권위있는 국내 · 외 전문가 선정

※ Ⅰ분과(오전) : 논제별 발표 1, 토론 2명 / Ⅱ분과(오후) : 논제별 발표 및 토론 각 1명

【참 고 1】 **기본일정**

일 시		내 용	
9. 2(월)	18:30 ~ 21:00	• 환영 리셉션 및 만찬	
9. 3(화)	09:00 ~ 09:30	• 주요 참석자 환담	
	09:30 ~ 10:20	• 개회식 * 개회사, 축사, 기조연설 및 기념촬영	
	10:20 ~ 12:30	1분과	• 논 제 1 (아시아·태평양 해양안보환경 평가)
			• 논 제 2 (주변국의 해양정책·전략)
	12:30 ~ 14:00	• 오 찬	
	14:00 ~ 16:30	2분과	• 논 제 3 (한반도 해양안보 환경 평가)
			• 논 제 4 (주변국 간 해양신뢰구축 방안)
			• 논 제 5 (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해군협력)
			• 논 제 6 (한국해군의 역할·과제)
	16:30 ~ 16:40	• 폐회식	

【참 고 2】 **최근(11 ~ 13회) 주제·논제**

구 분	주 제
13회('17년)	**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전망과 과제** ● 1분과 : 아태지역 국가의 국방정책과 해양전략 ● 2분과 :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이슈와 과제
12회('15년)	**동아시아 해양안보와 다자간 해양안보협력 방안** ● 1분과 :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● 2분과 : 역내 국가 간 해양안보 협력증진 방안
11회('13년)	**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해군의 역할** ● 1분과 :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주변국의 해양안보 정책 ● 2분과 : 북한·초국가적 위협 대비, 해양안보 증진 방안

【참 고 3】 전통적 ·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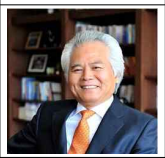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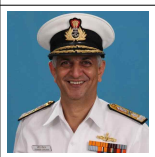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제
전통적 위협 Traditional Threat	• 미국과 중국 간 해양패권 경쟁 * 인도태평양 구상 VS 일대일로 전략, 원양작전 · 입체 해군전력 강화 • 역내국가 간 해군력 경쟁 * 해양 핵심이익 고수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해군력 증강 • 영토 및 관할권 문제(도서영유권,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등) * 한반도 인근(한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), 동중국해(센카쿠 열도 : 중국, 일본), 남중국해(미국, 중국, 동남아 등)
비전통적 위협 Non-traditional Threat	• 해적 · 테러, 자연재해, 해상사고 · 재난, 해양오염, 난민, 불법조업, Gray Zone 사태 등

【참 고 4】 축사 · 기조연설 · 사회자 약력

구 분	대 상	주요경력	고려사항
축 사	 안 규 백	•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• 現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	
기조연설	 Harry Harris	• 美 해군사관학교 • 美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• 現 제32대 주한 美 대사	• 美 해군 4성 제독 출신 주한 美 대사
사회자	 김 지 윤	• 美 MIT대 정치학 박사 •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여론분석 센터장 • 現 MBC 100분토론 사회자	• 국제정치 및 미국 전문가
	 이 서 항	• 美 켄트대 정치학 박사 •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부 부장 • 現 제6대 해양전략연구소 소장	• 공동주최 기관 KIMS 소장

【참 고 5】

발표 및 토론자 약력

구 분		발표자		토론자	
Ⅰ분과 [오전]	논제①		• John Blaxland 교수 (호주) • 캐나다 왕립군사학교 군사학 박사 • 現 호주 국립대 아시아태평양 국방전략 연구센터 교수		• Mark Lippert (미국) • 美 스탠포드대 정치학 석사 • 제31대 주한미 대사 • 現 Boeing International 부사장
					• Wu Shicun 박사 (중국) • 現 중국 남중국해 연구원 소장
	논제②		• Erik French 교수 (미국) • 美 시라큐스대 정치학 박사 • 現 뉴욕주립대 정치학 교수		• John Kingwell 해군 소장 (영국) • 리비아 카다피 퇴출 연합작전 사령관 • 現 영국 왕립국방대 부총장
					• Pradeep Chauhan (인도) • 예비역 해군 중장 • 現 인도 국가해양연구원 국장 모디 수상 전략보좌관
Ⅱ분과 [오후]	논제③		• 이춘근 박사 • 美 텍사스 주립대 정치학 박사 • 現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이사		• Peter Gumatatao (미국) • 美 해군 예비역 소장 • 現 하와이 APCSS 소장
	논제④		• 조성민 교수 (미국) • 美 조지타운대 정치학 박사 • 現 하와이 APCSS 교수		• Tetsuo Kotani (일본) • 日 Keio대 정치학 석사 • 現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
	논제⑤		• Paal Hilde 교수 (노르웨이) • 英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• 現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		• 신형철 박사 • 생태학 박사 • 現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
	논제⑥		• 구민교 교수 • 美 UC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• 現 서울대 행정학 교수 국제협력본부장		• 김대홍 기자 • 중앙대 정치학 박사 • 現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팀장

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?

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.

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?

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 그것일 것이다.

- 육당 최남선(1890~1957) -

Who will rescue this country?
It will be the one who builds this country as a maritime power.
How can this country be rescued then?
It will only be possible when this country builds up its strength as a maritime nation.

- Choi Namsun(1890~1957) -

* 영역(英譯) : 해군소령 유지훈

Translated into English by LCDR Jihoon Yu of ROK Navy